

벤처기업인 위한 나래코리아 송년음악회

13일 전주 더메이호텔서 테너 류정필·소프라노 김순영 아름다운 무대 만날 수 있어

전주에서 중소벤처기업인의 날을 기념해 중소 벤처기업인들의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송년을 맞아 새해에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더 힘을 내자는 의미로 벤처기업인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가 열린다.

오는 13일 오후 4시 전주 더메이호텔 2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테너 류정필씨와 소프라노 김순영씨가 출연하여 아름다운 멜로디 선율의 노래를 선사할 예정이다.

류정필 테너는 서울대 성악과 졸업 후 유럽으로 건너가 이탈리아 파르마 오르페오 국제아카데미와 스페인 리세우 콘서바토리 석사 및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그 후 이탈리아 벨리니 국제 콩쿠르, 스페인 프란체스카 쿠아르트 국제 콩쿠르 등 세계 주요 콩쿠르 입상을 통해 그 실력을 널리 인정받았다.

그 뒤 이탈리아 그로세토 심포니, 스페인 갈리시아 심포니, 일본 히로시마 필하모니, 핀란드 미켈리 심포니에타, 오스트리아 니더외스트라이히톤켄스틀러 오케스트라, 체코



이인호 회장



류정필 테너



김순영 소프라노

아나체 필하모니, 프라하 심포니에타 등 해외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한국인의 자긍심을 널리 알리며 세계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알카모 국제 성악 콩쿠르 심사위원과 국립오페라단 상근 단원을 역임하며 경력을 쌓았으며, 특히 국립오페라단 전속 솔리스트 활동 시절에는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와 '맥베드', 푸치니의 '라보엠', 비제의 '카르멘', 도니체티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등 유수 오페라 주역을 맡으며 오페

라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혀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다.

이날 류정필 성악가는 민요모음곡, Por una Cabeza, 그 겨울의 첫집을 부른다.

소프라노 김순영은 '이 시대 최고의 디바'로 불리는 재원으로 한양대 음대 성악과 졸업 후 독일유학길에 올라 만하임국립음대 석사졸업, 최고연주자과정을 수

료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 후 세종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후 현재 한세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유럽과 한국을 무대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어 장래가 기대되는 유망 성악가이다.

수상경력 2013 오페라대상 특별상(피플 투피플), 성성음악콩쿨 1위, 동아콩쿨, 스위스 Geneve 국제콩쿨 입상,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하는 등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김순영 소프라노는 내 맘의 강물, 아름다운

나라, 메모리를 불러 관객들의 심금을 울릴 예정이다.

두 성악가는 듀엣곡으로 Time to say goodbye를 부른다.

이번 공연은 '2022 전북벤처협회와 함께 하는 58회 나래코리아 연주회'로 명명되어 음악 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이인호 회장님과 나래코리아 김생기 대표가 서로 힘을 합쳐서 중소벤처기업인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성격으로 진행되는 성격의 음악회이다.

이번 중소벤처기업인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를 주최하는 전북벤처협회 이인호 회장은 "2022년 힘든 한해를 보내며 중소벤처기업인들과 마음을 합쳐 2023년에도 더 어렵고 힘들 것을 생각되지만 더 힘을 내서 중소벤처기업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생기 대표도 "제 고향을 자주 찾게 되는 데 음악회를 통해 방문하게 되니 더 감회가 새롭다"며, "음악은 지치고 힘든 인간에게 힘과 힐링을 제공하게 되는 것 같아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했다."

/양은경 기자

둘레, '우물井에서 해시태그#로' 진행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둘레가 주관하는 '우물井에서 해시태그#로'가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상동 청소년 문화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우물井에서 해시태그#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5년간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문화로 행복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민 스스로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주도하는 '쟁고를 문화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하여 만든 결과물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 및 공감하는 장이 될 것이다.

'우물井에서 해시태그#로'는 1부, 2부로 진행되며 1부 순서로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전시, 프리마켓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2부 순서로는 사)둘레와 사)나누매기 두 단체의 축하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우물井에서 해시태그#로'는 기존에 정읍의 문화예술공연에서 시도하지 못한 청소년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지역 활동가들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며 120인의 공연을 준비 중이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정읍 시민들이 새롭게 제시하는 문화예술의 방향성을 공감 할 수 있는 공연이 될 예정이다.

'우물井에서 해시태그#로'는 시민들이 온전히 행사를 즐길 수 있게 프로그램의 내용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행사 진행 간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처, 각 구역별 인원배치 및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공연의 주관 사단법인 둘레의 안수용 이사장은 "정읍 시민분들에게 선보이는 '우물井에서 해시태그#로'를 통하여 문화라는 키워드로 삶이 한층 즐거워지길 바라며, 정읍시의 문화 발전에 있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라고 전했다. 또한 "사단법인 둘레에서 진행되는 문화도시 정읍을 위한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김제시 읍면동 농악발표회 성황리 개최

지난 10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김제시 읍면동 농악발표회가 열려 각 읍면동을 대표하는 농악단과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지역의 특색 있는 농악가락을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는 흥겨운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인 김제농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읍면동 농악단 11팀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김제농악보존회의 흥겨운 특별 축하공연과 함께 각 읍면동 농악단들의 다양한 예술성과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열띤 공연이었다.

이날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악단은 한국국악협회 전라북도지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제42회 전북 시군농악경연대회에 김제시 대표팀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김제=곽태기 기자

'기증 그 아름다움 기획전' 개최

무주 최북미술관, 기증작품 6점 포함 서양화·한국화 작품 25점 전시

무주군이 전라북도내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서양화·한국화 작가들의 작품, '기증 그 아름다움' 기획전을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023년 1월 26일까지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실에서 '기증 그 아름다움 기획전'을 49일 동안 개최해 무주군민들에게 예술적 가치를 나누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오전 최북미술관 기획전실에서 이들 기증작가 5인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기획전에 출품한 작가들은 유명 서양화·한국화 작가들로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서 겨울철을 맞아 군민들에게 문화 욕구를 충족하게 해주시길 전망이다.

이번 '기획전'에는 기증작품 6점을 포함해 25점의 서양화·한국화 작품들이 선보이며 고희숙·김원·이주리·장우석·조정희 작가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고형숙(일상의 풍경), 김원(WEIGHT OF SALE), 이주리(살다), 장우석(반고흐), 조정희(고향·도시의 일상) 작가가 작품을 무주군에 기증했다.



고형숙 작가는 매일 작가가 생활하는 익숙한 일상의 풍경을 담담한 먹과 채색으로 표현해 책장과 실내로 파고드는 나무 그림자 등을 소재로 작업했다.

김원 작가는 작품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다소 우물쭈물하게 관찰해 무거운 주제를 위트와 유머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이주리 작가는 인체를 향한 집요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21세기 세계관과 인간관을 축적하는데 정성과 힘을 기울였다.

장우석 작가는 인간의 내면을 파고드는 진실에 관한 시선과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울부짖는 사람들의 절규의 순간들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무주출신인 조정희 작가는 아름다운 무주풍경 등을 유화로 표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기획공연 '꿈속에서 꿈을 꾸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기획공연으로 '꿈속에서 꿈을 꾸다'를 무대에 올린다.

지난 9일 전당에 따르면 2022년 저무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전당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전북도민들을 위해 대형 뮤지컬 '엘리자벳'과 클래식 거장전 '사라 장 & 비르투오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5편을 송년기획으로 준비했다. 특히 연극 '꿈속에서 꿈을 꾸다'는 이 중 연극장르에서 선정한 작품 중 하나로, 창단 60주년을 맞은 창작극회와 공동 기획으로 마련된 특별한 무대다.

이 작품은 전북지역에서 반세기가 넘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극단인 창작극회의 유구한

세월 속에서 기념할만한 희곡들을 재조명해, 한국소리문화의전당만의 전문적인 기획력과 기술력을 합쳐 지역의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16~18일 전당 연지홀에서 공연되는 '꿈속에서 꿈을 꾸다'는 그동안 선보인 창작극회의 작품들 속에 녹아 있는 현대사의 아픔과 질곡을 하나의 작품으로 엮어 무대 위 배우들과 함께 꾸는 꿈으로 구현했다. 특히 현대사를 가로지르는 국민적 정서와 연극을 통한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더 나아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천년한지관, 창작 연극 '한지꽃이 피었습니다' 재공연

전주천년한지관은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과 11시 두 차례에 걸쳐 전당 공연장에서 창작 연극 '한지꽃이 피었습니다'를 재공연한다고 밝혔다.

'한지꽃이 피었습니다'는 전주한지를 주제로 지난 9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 공연한 바 있고, 이번 재공연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재공연은 전주교육지원청의 제안

에 따른 것으로, 창작연극이 교육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연극 공연을 위해 관내 학교를 모집하고, 공연 당일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등 성공적 공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